

믿어주는 마음



김 우 종

자동차를 몰면서 서독에서 스위스로 여행을 떠날 때였다. 아침 일찍 떠나서 고속도로를 한시간쯤 달리다가 우리는 어이없이 출발점으로 되돌아 가야만 했다. 일행중 한 사람이 여권을 숙소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도 없이 국경선을 넘는다든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되돌아갔다 다시 스위스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스위스에 일찌감치 도착해서 시내구경부터 하고 저녁에 먹을 과일도 사려 했었는데 계획이 틀려 버렸다. 오후 다섯시면 대개 상점들은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경에 닿았을 때는 거의 해가 저물 무렵이 되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문앞에서 우리는 차를 세우고 여권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여권은 보지도 않고 스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으며 돈을 냈다는 표시로 스티커를 차에 붙여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여권 때문에 되돌아가서 몇시간씩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았던가?

스위스에서 다시 서독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여권을 꺼내들지도 않았다. 경비원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통과시켜 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믿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물론 자기네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유레일 패스권을 사가지고 유럽 각지를 다녀 온 일이 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승차권을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임승차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곤욕을 치르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믿고 사는 일이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럽 여러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낫고 경제적 수준도 우리보다 높다는 것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어지간히 그들 가까이 따라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공업기술도 꽤 발달해서 자동차도 수출하고 TV와 냉장고도 수출한다. 중국같은 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야말로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다.

「중공에도 디스코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무엇보다도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천정에서 커다란 선풍기 하나가 돌아가는게 전부지요. 시원한 맥주를 먹으려고 시켰더니 따뜻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엔 냉장고도 없거든요.」

여름에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 그곳의 생활수준을 말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문짝조차 없어서 밖에서 누구나 보도록 되어

있는 공중변소. 그래서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 특히 여자들은 보자기를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공중변소에 들어가 앉게 되면 그것으로 앞을 가리고 용무를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미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과연 자동차나 TV 냉장고 등을 수출하고 외국 여행이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진국일까?

경제적 수준이나 과학수준, 예술 문화의 수준이 향상되면 그와 함께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도 향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예외적으로 이같은 원칙이 깨지고 있다. 돈 벌고 잘 사는 계층은 많아졌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살아 가려는 풍토는 되어 있지 않다.

이같은 우리 사회와 달리 유럽의 선진국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서로 믿고 사는 풍토라는 것이다. 물론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도둑이 있는 특수한 나라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 건망증으로 보따리를 놓고 몇시간 만에 있다가 돌아와도 그대로 그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그들의 사회다.

이런 나라에서는 거의 신분 증명서가 필요 없다. 보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경찰을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서 항상 자기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 한가지 하는데 왜 그렇게도 도장을 많이 찍어야 하는지?

이것이 모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닐까?

우리에게 친구나 연인이나 부모형제가 소중한 까닭은 그들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결해주려고 애쓰는 것이며 그만큼 그들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항상 기쁘고 외로움을 모르게 된다.

온 사회가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상대라면 그 사회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사회이며 그것이 참된 선진국이요 문명국이 아닐까?

불신사회로만 치달아온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보고 무조건 믿는 습관부터 가져 보라고 권할 수는 없다. 안 믿으려 하다가도 번번이 속기 쉬운 것이 우리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일수록 상대를 믿어준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만큼 고마운 일이다. 억울하게 불신만 받던 세상에서 한 번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몇배로 은혜를 갚아주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오히려 작은 일에서 한번 믿어준다는 평범한 일만으로도 오히려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친구나 연인이나 부모형제가 소중한 까닭은 그들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만나면 항상 기쁘고 외로움을 모르게 된다. 온 사회가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상대라면 그것이 참된 선진국이며 문명국이 아닐까?

